

강림절 교육자료집

2019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2019 강림절 교육자료집

부모가 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생일을, 어버이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대단한 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 받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쓰인 삐뚤한 글씨가 주는 감동을, 찡함을 아직도 떠올리며 속 썩이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세상은 조금씩 들썩이며 선물과 파티로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교회입니다. 조금은 허술해보여도 교회가 준비하는 성탄이 그분을 미소 짓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분이 피로 사신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면 좋을까?는 질문을 가지고 이 강림절 자료에 '기다림'을 담아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누는 말씀, 동화, 영상, 찬양, 만들기, 연극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서툰 글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서툰을 미소로 받아주시리라 믿기에 올해도 강림절 자료를 기쁨으로 내어 놓습니다.

01 강림절 매주 설교문과 PPT _ 배명 목사 (수암교회)	04
02 강림절 음악극 악보와 음원 _ 최수민 작곡자	13
03 성탄절 동화 및 영상 _ 류성렬 목사 (나무십자가교회) / 오현식 목사 (이룸교회)	20
04 강림절 연극대본 _ 노명재 목사 (은강교회)	25
05 강림절 환경장식 및 자료사진 _ 김주애 전도사	33

01



강림절 매주 설교문과 PPT

배명 목사(수암교회)

- 이사야의 기다림
- 요셉의 기다림
- 동방박사의 기다림
- 세례 요한의 기다림

교육강림절 1

이사야의 기다림

어둠 속에서 오시는 참 빛, 예수님을 기다려요. (사9:1-7)

여러분 무엇을 기다려본 적 있나요? 배고플 때 맛있는 냄새가 나면 어떤 음식일까 기대하며 식사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또 친구들과 약속을 하면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며 시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만화나 시리즈 영화를 오랜 시간 기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나요?

‘기다린다’라는 뜻의 영어단어 ‘Wait(웨잇)’은 ‘보다’라는 뜻의 ‘Watch(왓치)’라는 단어에서 생겨났어요. 그러므로 ‘기다린다’라는 의미는 다른 곳에 한눈팔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올 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다양합니다. 설레는 마음, 기쁜 마음,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오늘 성경 속에 주인공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에 찬 목소리로 사람들을 향해 외쳤어요.

“참 빛이 오실 겁니다!”

“빛을 기다립시다!”

“크고 놀라운 빛이 오십니다!”

이렇게 외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것이 편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죄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를 지었어요. 죄악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캄캄한 어둠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빛이 우리를 비출 것입니다!”

“그 빛은 크고 놀라운 참 빛입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줄 것입니다!”

“그 빛으로 어두움은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였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과 백성 그리고 나라에 설교하고 예언하는 일을 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사야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되었어요. 그 빛은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예언 해주시고 약속해주신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에는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예요.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예언’이기도 했어요. 이사야의 기다림은 죄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해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깜깜한 밤,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멋진 불빛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어요. 캄캄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트리의 스위치를 ‘탁!’ 켜면 반짝반짝 멋진 빛을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과 어두운 방이더라도 빛이 있으면 밝아집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죄의 어둠 속으로 가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게 하지요. 그 어둠은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해요.

그러나 그 어둠을 밝혀 줄 참 빛이 계세요. 그분은 구원자 ‘예수님’ 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셔서 어둠을 밝혀주세요.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라도 빛을 이길 수 없고,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둠을 밝히는 ‘참 빛’ 이 되어주세요.

강림절 기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참 빛’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어린이가 됩시다.

요셉의 기다림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다려요. (마1:18-25)

친구들이 놀이공원에 마지막으로 간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나요? 친구들 중에는 놀이기구를 잘 타는 친구들도 있지만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죠. 무서운 놀이기구를 탈 때, 손을 꼭 잡을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타면 두 눈을 질끈 감고도 두려움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어두운 밤에 캄캄한 길을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뒤를 돌아보거나 빠른 걸음으로 걸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캄캄한 길이라도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면 무서운 길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고 재밌는 길이 되겠죠.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셉도 혼자 두려워했던 적이 있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요셉이 왜 두려워했는지, 요셉의 두려움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요셉을 소개할게요. 요셉은 정의롭고, 정직하고, 반듯하고... 한마디로 바르고 멋진 사나이였어요. 이런 요셉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요셉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마리아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줄까 봐 두려워했어요.

또 자신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밴 여인을 약혼했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는 것은 더 두려웠어요. 그것은 율법에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나오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두려움으로 요셉은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요셉의 마음을 아시고 요셉의 꿈속에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배 속의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

님께서 함께하신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마리아의 임신으로 두려움이 생겼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예언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두려웠던 마음은 사라지고 기쁨과 기대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기쁘고 즐거웠어요.

요셉이 여전히 혼자였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마리아와 헤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 마리아를 정성껏 돌보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요셉의 마음을 알고 천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도 요셉의 기다림을 기억하세요. 요셉은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며 강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 강림절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하신다는 믿고 두려움을 이기며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꼭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의 기다림

기쁨이 되시는 진짜 왕, 예수님을 기다려요. (마2:1-12)

어린이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아나요? 어느 가을날 영국에서 두 명의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명은 왕자였고, 한 명은 거지의 아들이었어요. 그 둘은 신기하게도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왕자는 백성들의 축복을 받으며 자랐고, 거지의 아들은 아버지와 할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구걸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왕자와 거지는 서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옷을 바꿔 입었지요. 왕자와 거지는 얼굴이 너무 똑같은 나머지 옷을 바꿔 입자 누가 진짜 왕자이고, 거지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진짜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 실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 진짜 왕자와 가짜 왕자, 이렇게 왕자가 두 명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두 명의 왕이 나와요.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당황한 모습으로 웅성웅성했어요.

"아니 여기에 우리 '헤롯' 왕이 있는데, 왕이 새로 태어났다니?!"

어느 날 동방에 있던 박사들 앞에 별이 나타났어요. 그 별이 왕이 태어날 징조라는 것을 알고 있던 동방박사들은 별이 가리키는 곳으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별은 이스라엘을 향했고 동방박사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왕이 사는 왕궁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왕궁으로 찾아가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들에게는 이미 왕 '헤롯'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가장 놀랐던 사람은 헤롯 왕 자신이었어요.

헤롯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별나고 포악한 통치자였어요. 자신의 권력을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신하는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들까지 죽였던 왕이었어요. 그렇게 포악한 왕이었던 헤롯이 얼마나 기가 차고 황당했을까요?

헤롯 왕은 당장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에 있을지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 왕이 베들레헬에서 태어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베들레헬에 가서 새로 태어난 왕을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도 경배하러 가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새로 태어난 왕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물어본 것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새로 태어날 왕을 찾아 다시 떠나자, 헤롯왕은 참았던 분노를 감출 수 없었어요.

한편 동방박사들은 다시 별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별이 멈추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그곳이 아기가 있는 곳이었어요. 위에 머물러 선 것이예요. 동방박사들은 멈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어요.

‘드디어 새로 태어나신 왕을 볼 수 있구나!’

별이 하늘에 머무른 집에 들어가 보니 너무나도 작고 예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었어요. 그들은 그 아기가 새로 태어나신 왕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채고, 그 아기에게 가져온 보물들을 드리며 기쁨으로 경배드렸어요. 그 아기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셨어요.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예요. 생명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보자 동방박사들의 마음은 벅 차는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박사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지만 꿈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헤롯 왕에게 일절 말하지 않고 헤롯 왕이 모르게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동방박사에게 속은 것을 안 잔인한 헤롯왕은 새로운 통치자가 없도록 베들레헴에 사는 두 살 이하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다행히도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이집트로 도망 갈 수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은 화를 내었어요. 그리고 어린 아기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백성들에게 기쁨과 생명으로 이끄는 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쁨과 생명의 왕이세요.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척 기뻐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실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가짜 왕’이 너무나도 많아요. ‘가짜 왕’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지도 모르지만 결국 ‘화’와 ‘죽음’만 있을 뿐이예요.

진짜 왕인 척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지만 흔들리지 않고 ‘진짜 왕’을 기다려야 해요. ‘진짜 왕’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세요. 그 ‘진짜 왕’은 바로 ‘예수님’ 이세요.

강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진짜 왕’ 예수님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세레 요한의 기다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을 기다려요. (요1:29-34)

선생님은 학교를 다닐 때 가장 설레고 기다려지던 시간이 있었어요. 새 학년이 시작되고 학교에 처음 간 날, 일 년 동안 함께할 담임선생님이 누구일지 기다릴 때였어요. 그래서 처음 등교하는 날 복도에서 여러 선생님을 마주쳐도 누가 우리 담임선생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에 미리 담임선생님이 누구신지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너희 담임선생님은 머리는 까만색에 키가 크시고 안경을 쓰셨어. 그리고 성함은 000이야”

만약 여러분의 담임선생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았다면, 반으로 달려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거나 담임선생님을 소개하기 바쁠지도 몰라요.

오늘 읽은 성경의 주인공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오늘 주인공은 자신이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요?”

멋진 옷과 장식을 한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가운데에 한 사람을 둘러싸고 이렇게 물었어요. 둘러싸인 그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자 무리의 사람들이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요?”

무리의 질문에 둘러싸인 한 사람이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옛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라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무리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고, 그들에게 둘러싸인 한 사람은 바로 ‘세레 요한’이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세레 요한에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요한!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사람들에게 세레를 줍니까?”

세레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저 물로 세레를 주지만 내가 기다리는 분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즉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어요. 세레 요한에게 질문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확실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머무시는 분이 “그리스도” 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만난 다음 날 예수님께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와 머무시는 것을 보고 주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라는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강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강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세례 요한이 말했던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어요. 어린양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던 희생 제물이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양” 이시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이시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해주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남은 강림절 기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어린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02



강림절 음악극 악보와 음원

최수민 작곡자

- 오래 참고 기다려요

오래 참고 기다려요

〈강림절 음악극〉

곡 최수민

Narration: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

Piano

5

오 직 성 령의 열매는 사 랑과 희 락과 화 평과 오래 참음과-

Pno.

9

자 비 와 양 선 과 충 성과 온 유 와 절 - 제 니

Pno.

Narration: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
모두 다 소중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이지만, 그 중에 오래참음이 가장 절실한 때인 것 같이
그럼, 우리가 무얼 오래참고 기다려야 하는 지 들어볼래?

캄캄한 어둠 속, 이스라엘은 빛을 기다렸어. 이사야는 참 빛을 기다리며 예언했지.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할 것은 어둠을 이기는 빛이야.

13

이 사 야 예 언 대 - 로 -

Pno.

17

어 리 신 우 리 주 - 동 정 녀 마 리 아 - 몸 빌 려

Pno.

21

이 땅 에 나 셧 다 탄 생 한 아 기 는 -

Pno.

25

영 원 한 구 세 주 - 우 리 가 전 에 는

Pno.

28

어 두 움 이 었 지 만 이 제 는 빛 의 자 녀

Pno.

31

라

Pno.

Narration: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약혼한 여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예언했어.
우리가 오래참고 기다려야 할 것은 이런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야.

34 $\text{♩} = 92$

Pno.

36

무 서워 하 지 말 라 너 잉 태 하 리 니

Pno.

40

그 탄 생 하 는 아 기 예 수 라 하 리 라 오

Pno.

44

세 상 다 스 리 시 는 만 왕 의 왕 이 라

Pno.

48

그 이 름 임 마 누 엘 우리 와 함 께 하 신

Pno.

52

Pno.

Narration: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난 왕을 찾았어.
우리가 오래참고 기다려야 할 것은 진짜 기쁨을 주시는 왕이야.

56 $\text{♩} = 128$

Pno.

60

Pno.

64

Pno.

68

Pno.

72

원수들을 물리쳐 - 주 뜻 - 대로 되

Pno.

Fine

75

D.S. al Coda

도 다 - 왕

Pno.

Narration: 세례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며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었어.
우리가 오래참고 기다려야 할 것은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78

$\text{♩} = 80$

Pno.

82

죄악된 세상에 어린양으로 어린양으로 오셨

Pno.

86

네 죄로 상한 우리마음에 소망 주시네 주의

Pno.

90

빛 난 보좌 앞 에 이 르 게 하 소 서 주의

Pno.

94

빛 난 보좌 앞 으 로 인 도 하 소 서

Pno.

Narration: 소망의 예수님을 오래참고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99

Pno.

03



성탄절 동화 및 영상

류성렬목사(나무십자가교회) / 오현식목사(이룸교회)

- 눈물별(창작동화)

창 작 동 화

눈물별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이건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이야기야. 아니, 아니. 어찌면 요즘 이야기일지도 모르지.

그때 작은 별 하나가 태어났단다. 사람들이 흘린 눈물이 저녁 공기를 타고 하늘로 끝도 없이 올라가다가 막 저무는 햇살 끝자락과 만나 돌돌 뭉쳐졌는데 그게 그렇게 예쁜 별이 되어버린 거야.

막 태어난 작은 별은 보이는 모든 게 신기했다. 그중에서도 분주하게 오가는 개구쟁이 별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지. 낮에는 은하수에서 먹을 감다가 밤 시간에 맞춰 돌아오느라 은빛가루를 정신없이 흘날리곤 했거든. 그럴 때면 애꿎은 바람 아저씨가 몹시 분주해져. 뒤쳐진 별들을 휘휘 몰아 원래 자리로 데려다 놓아야하니깐. 별자리들이 형클어지는 바람에 땅 위 나그네나 뱃사람들이 길을 잃으면 곤란하지 않겠어?

작은 별은 마음씨 고운 달님과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했다. 햇살 자락을 타고 하늘로 올라오는 물방울들에 몸을 닦는 일 못지않게 말이야.

- 나는 정말 크고 밝은 별이 되고 싶어요.

어느 날 작은 별이 외쳤어.

- 정말? 지금처럼 작고 예쁜 꼬마별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텐데.

달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고.

- 피. 달님은 밤하늘에서 제일 크고 반짝이니까 우리처럼 작은 별의 마음을 알 턱이 없죠.

달님은 말없이 빙긋 웃기만 했어.

- 나는 북두칠성이나 남십자성처럼 유명한 별자리에 있지도 않고 셋별처럼 환하게 빛나지도 않아요. 그저 밤하늘에 박힌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요.

- 꽤 유명해지고 싶은 게로구나.

- 그럼요. 나는 누구나 우러러보는 위대한 별이 되어서 이 하늘을 멋지게 수놓고 싶어요. 누구나 알고 누구나 기억하는 그런 별이요. 아,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아요, 달님?

달님은 또 말없이 웃기만 했다. 달님은 늘 그렇게 웃어. 그래서 사람들은 웃는 얼굴을 보면 달덩이 같다고 하는지 몰라.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갔어. 그 사이 작은 별은 조금씩 깨달아 버렸다. 아무리 꿈꾸고 바라보아도 자기처럼 작은 별은 더 커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야. 아무리 밝게 빛나고 싶어도 작은 별은 그냥 작은 별인 거야. 그래서 작은 별은 점점 슬퍼졌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작은 별이 저녁 햇살 끝에 송알송알 매달려 올라온 물방울들에 여느 때처럼 얼굴을 적

시려는데 물방울 하나가 문득 말을 걸어온 거야.

- 너는 다른 별들과는 달라. 그렇지?

-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별이야. 다른 별들과 다를 게 없는 별. 조금 더 작고 초라하긴 하지만.

- 너는 작고 초라하지 않아. 오히려 특별하지. 너 역시 우리와 같은 눈물이니까.

- 네가... 눈물이라고? 나도... 눈물이고?

- 틀림없어. 우리는 같은 눈물이야. 사람들이 흘린 눈물. 눈물이 별이 되다니 신기하기도 하지.

작은 별은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았어. 하지만 물방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 너에게 부탁이 있어. 우리를, 아니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 네가 빛을 비춰줘. 세상에서 가장 밝고 아름다운 빛을.

작은 별은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지.

- 네가 그냥 물방울이 아니라 사람들 눈물이라는 걸 믿을게. 나 역시 눈물이라는 것도 그렇다 쳐. 하지만 그래 봤자 변하는 건 없어. 나는 이 하늘에서 제일 어리고 작은 별에 불과해. 밝고 아름다운 빛은 어림도 없지. 나도 한때는 꿈꿨지만 이제는 아닌 걸 알아.

- 그렇지 않아. 이 하늘에서 오직 너만 가장 밝고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어. 너는 눈물이니까.

- 그럴 리가...

-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야. 작은 별,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네 안의 빛을 꺼내는 방법을.

그날부터 작은 별은 무언가 다른 별이 된 것 같았다. 틈만 나면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고 종종 한숨을 쉬는 것도 같았다.

눈물방울들은 매일 저녁 하늘로 올라왔고 그때마다 작은 별과 이야기를 나눴어. 그렇게 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 년이 가고 이 년이 지났는데... 참 신기한 일도 다 있지. 어느 순간부터 작은 별은 그 눈물방울들을 통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야. 아파서 멧힌 눈물 속에서는 아픈 사람들을, 실망해서 쏟은 눈물 속에서는 실망한 사람들을, 슬퍼서 흘린 눈물 속에서는 슬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픈 사람들... 그래. 작은 별은 유난히 아픈 사람들을 보고는 같이 아파했단다. 그래, 너라면 이해할 거야. 작은 별의 마음을.

아마 그 때부터였을 거야. 작은 별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것은. 처음 그것을 발견한 것은 달님이었대.

- 애야. 네 가슴이 예전과 다른 것을 알고 있지?

- 네. 알아요. 달님.

-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도?

- 글썽요. 눈물 같기도 하고.

- 눈물?

- 네. 사람들의 눈물이요.

달님은 이번에도 변함없이 빙긋 웃어주었다.

며칠 후 작은 별은 가슴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왔어. 그 아픔이라는 게 글썽,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직 어린별이 견뎌내기에는 너무 힘들 정도였다고 할까? 하지만 착하고 예쁜 작은 별은 곳곳하게 잘 견뎠대. 가슴

이 잔뜩 부풀어 오르고 숨이 가빠왔지만 작은 별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

그날은 개구쟁이 별들도 떡 감으러 가지 않았고 바람 아저씨도 별자리 다듬는 일을 쉬었지. 달님도 말없이 작은 별을 지켜봐주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큰 목소리가 온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아침 기지개 켜는 해님보다도 별과 별 사이를 회초리처럼 내리치던 천둥보다도 더 위엄 있는 목소리가 말이야.

- 아! 누구일까? 온 우주에서 가장 크고 밝은 별이 될 이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위대한 빛의 길을 밝힐 이는!

바로 그 때, 풍선처럼 부풀었던 작은 별의 가슴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화산처럼 팽 터져버렸다. 그리고는 반짝이는 호수의 물비늘처럼 눈부신 보석들이 그 가슴에서 무수히 쏟아져 나와 작은 별의 주변을 뒤덮었던 거야. 작은 별은 순식간에 북두칠성보다 남십자성보다 셋별보다 밝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더니 서서히 하늘 길을 가로질러 천천히 나아갔다. 정말 멋진 광경이었지.

바람 아저씨 목소리가 묵직하게 들려왔어.

- 땅의 사람들이 빛을 보았군. 박사 세 사람이 별빛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달님이 부드럽게 말을 받았다.

- 그곳에 그분이 오실 테지. 가장 크고 밝은 별빛이 이끄는 바로 그곳에.

문득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 물었다.

- 박사들이 그곳에 닿으면 작은 별은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부드럽지만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달님이 다시 대답했어.

- 사라지지. 마치 눈물이 마르듯이. 자기를 불살라 그분의 길을 열고는 그렇게 사라지지. 그분처럼 그분의 별도.

개구쟁이 별들이 목소리를 합해서 구슬프게 노래하기 시작했다.

- 반짝반짝 작은 별 어디에도 없대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찾을 길이 없대네.

“너무 슬픈 이야기야, 엄마. 작은 별은 결국 사라지고 마는 거야?”

새하얀 침대 시트를 툇 아래까지 끌어올린 아이의 낮빛은 시트의 색깔보다 오히려 더 창백했어요. 눈가에는 이슬이 송글송글 맺혀있었죠.

“그렇지 않단다. 애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아이의 눈가를 매만지며 엄마가 말했어요. 축축하던 아이 눈동자가 다시 빛났어요.

“박사들이 도착한 뒤 작은 별은 밤하늘에서 사라졌지만 놀라운 일이 생겼지. 하늘의 작은 별 이야기가 이 땅에 전해진 거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아이는 코에 찬 호흡기 너머로 침을 꼴깍 삼켰어요.

“그렇다니까. 그게 바람아저씨가 전해준 건지 개구쟁이 별들이 전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작은 별의 희생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은 저렇게 별을 매다는 거란다.”

아이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12월 밤거리에는 머리에 밝은 별을 엮은 성탄 장식이 반짝

이고 있었죠.

엄마는 빨강게 변한 콧날과 젖은 눈을 아이 볼에 부비며 따뜻하게 속삭였어요.

“사라진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란다. 얘야.”

나래병원 소아암 병동을 환하게 비추던 아이는 일주일 뒤 다섯 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작은 별처럼 사라졌어요. 반짝이는 호수의 물비늘처럼 눈부신 보석들을 가슴너머로 다 쏟아내고서 그렇게 하늘 길을 가로질러 천천히 떠난 거예요.

은하수에 맥을 감으려 갔는지 물방울과 노닐러 갔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사라진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어요. 아직 꺼지지 않은 12월 끝의 성탄 트리를 바라보며 엄마는 아이의 장기를 이식 받은 다섯 명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직하게 노래를 불렀죠.

반짝반짝 작은 별 어디에나 있다네... 어디에나 있다네...

04



강림절 연극대본

노명재 목사 (은강교회)

연극대본

성탄을 기다리는 빛

등장인물 : 보라색초, 연보라초, 분홍색초, 흰색초, 트리,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장,
학생1, 2, 3, 집사님, 여성교회장, 목사님

*1막 무대는 예배실이다. 가운데 강림절 초가 장식되어 있고 한쪽에는 성탄 트리가 즐고 있다.
막이 오르면 어둠속에서 트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숨바꼭질 술래가 된 보라색 초가 숫자를 센다.
(배경은 PPT 화면으로 띄어도 좋다)
어둠속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보라색초: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다 숨었지? 찾는다.
("찾는다"와 동시에 불이 켜지면 보라색초가 무대 가운데로 나와 두리번 거린다.)

보라색초: (피아노를 가리키며) 피아노 옆에 핑크초 나와!!

분홍색초: (일어나며) 에이, 괜히 여기 숨었네

보라색초: (강대상 뒤쪽을 넘겨보면서) 연보라 찾았다

연보라초: (입을 삐죽 거리며)치이~ 예배실이 너무 작아서 숨을 데가 없어

보라색초: 니가 잘 못 숨는 거지 웬 예배실 타령이냐?

(무대를 왔다 갔다 하며) 그런데 흰색 초는 어디 간거야?

(무대를 내려가 회중속에서 흰색초를 찾아서 데려온다.) 의자 밑에 숨으면 내가 못찾을 줄 알았지?

나는 술래만 지금 열 번째다.

흰색초: (토라진 표정으로) 이것도 지겹다. 이제 숨바꼭질 그만 하자.

모두 줄을 지어 앉아 있다.

흰색초: (뻘뻘한 목소리로) 그런데 우리 언제 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야?

보라색초: 글썸, 크리스마스까진가?

흰색초: (보라색초를 바라보며) 보라야, 너는 주일 날 불이라도 켜었지. 우리 그냥 서 있기만 했다고.

연보라초: 맞아. 그냥 서 있으려니까 좀 민망하고 그렇더라. 초켜시는 분이 우릴 깜빡한 거 아닐까?

분홍색초: 아닐걸 강림절 첫 번째 주니까 하나만 켜는 거라던데.

흰색초 강림절? 그게 뭔데?

연보라초: 헤이 지니 강림이 뭐야?

기제식 목소리로 지니가 대답한다.

- 지니: 강림은 2019년 4월에 출시되었으며 된 모바일 게임으로 드라마 도깨비의 주인공이었던 배우 이동욱씨가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 분홍색초: (흰색초를 보고 웃으면) 야, 강림을 물어보면 되냐 강림절이라니까
- 연보라: 부활절, 추수 감사절은 들어 봤지만 강림절은 뭐야?
- 흰색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음음 헤이 지니! 강림절이 뭐야?
- 지니: 강림절은 아기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을 교회에서 지칭하는 말로 강림절에 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에서 만든 강림절에 대한 동영상을 틀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자료실에 있는 강림절에 관한 동영상을 튼다. 시간은 교회의 상황에 맞게 조절한다.)
- 트리: (가만히 서 있다 앞으로 나오면서) 요새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구나.
- 초들: (반갑게) 아줌마 일어나셨군요?
- 트리: (기지개를 펴며) 니들이 하도 떠들어서 더 잘 수도 없겠다.
강림절 때문에 이렇게 웅성거린거야? 지니가 뭔가가 말해준대로 강림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4주간을 말한단다. 너희들은 한주 한주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불빛이 될 거야
- 흰색초: 4주간이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란 거예요. 너무 심심하단 말이에요
- 트리: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의미있는 일이잖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지 모른단다. 아마 우리 교회분들도 모두 그럴걸?
- 분홍색초: 성탄절이 4주나 남았다면서요 그런데 누가 벌써부터 그러겠어요
- 연보라초: 맞아요 요즘은 버스도 몇정거장 전에 와 있는지, 몇분이면 집 앞에 도착하는지 아는 그런 세상인데.. 4주전부터 이렇게 기다리는 건 좀 바보같아요.
- 트리: 그럼 교회의 다른 분들이 뭘 하면서 강림절을 지내는지 우리 찾아가 볼까?
- 초들: 좋아요. 그래요. 빨리 가보자구요.
- 흰색초: (따라 나가다 돌아서서 관객석을 향해) 가봐야 허탕이겠지만 너무 심심하니까 가보고 올게. 트리 아줌마가 우리를 누구한테 데려갔는지 내가 와서 자세히 얘기해줄게. (돌아 서서) 어어 같이가!!

〈 2막 〉

막이 열리면 찬양대 연습실에 지휘자님과 반주자님이 악보를 넘기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 반주자: (악보를 내려놓으며) 지휘자님 정말 속상해요 그것봐요 그냥 쉬운 곡으로만 하자고 그랬잖아요. 시간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연습 때 자꾸 사람들이 빠지니 ...
- 지휘자: 다들 사정이 있어서 그런거지 마음은 모두 오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특별한 날인데 우리

편하자고 아무 곡이나 하면 안되지요.

반주자: 그래도 진도가 잘 만나가니깐 너무 답답해요. 어디서 좋은 솔리스트라도 모셔와야하 는거 아닐까요?

지휘자: (손을 내저으며) 에이 안돼요, 그리고 우리교회 찬양대는 모두 훌륭한 분들이예요 조금만 더 연습 하면 이번 칸타타도 멋지게 해낼 거예요. 모두 무대체질이잖아요.

반주자: (장난끼있게 흘겨보며) 치~ 지휘자님이 그렇게 칭찬만하니깐 모두들 늦고 빠지고 성의가 없는거라 구요.

찬양대장: (차를 들고 들어온다) 반주자님 지휘자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지휘자: (엥겨주춤 받아들면서) 웬 유자차예요?

찬양대장: 우리 찬양대원 모두가 칸타타 준비로 수고하는데 우리부부가 뭐 할게 없을까 싶어서 지난번 시장에 갔을 때 유자를 사서 청을 만들었는데 맛이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반주자: (차를 한모금 마시고) 엄청 맛있네요. 솜씨가 이렇게 좋으신지 몰랐네요

찬양대장: 휴 다행이네요 처음해본거라.. 그럼 우리 성가대원 감기 걸리지 말라고 매주 타와야 겠어요.

지휘자님: 이렇게 찬양대를 사랑하는 대장님도 계시고, 칸타타를 걱정하는 반주자님도 계시고 우리 찬양대가 강림절을 제일 잘 보내고 있네요.

반주자: 지휘자님.. 지금 제가 불평했다고 놀리는 거예요.

지휘자: 자 찬양대장님 다들 오시기전에 반주자님과 이 부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반주자: (피아노에 앉으며) 우리 지휘자님을 누가 말리겠어요. 대장님 빨리 우리 연습이나 시작해요.

찬양대장: (웃으며) 네 그래요.

*피아노소리에 맞춰 칸타타곡을 부르며 불이 켜진다. 화면에 예수님의 웃는 얼굴과
보라색초에 촛불이 켜진 이모티콘이 잠시 나왔다 꺼진다.*

〈 3막 〉

불이 켜지면 분식집에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떡볶이를 먹고 있다.

학생1: (떡볶이를 집어 들고) 뭐래 크리스마스에도 학원 특강이 있는데 무슨 댄스를 하라는거야?

학생2: (매운 표정으로 물을 마신 후) 맞아 수행평가 땀에 머리가 아파 죽겠구만.. 그리고 댄 스를 한다쳐 도 교회서 하는건 너무 구리잖아. 적어도 트와이스춤은 해야지. 선생님이 가져온 건 너무 초딩스럽 지 않냐..

학생1: 샘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니까 바빠도 뭐라도 해야지 그러시더라.

학생2: 우리 엄만 내가 학원 빠지고 연습하러 간다하면 정신 나갔냐고 그럴지도 몰라.

학생3: (테이블로 다가와서) 니들 내가 여기 있을 줄 알았다. 통통거리며 가더니 또 떡볶이나?

학생1: (의자를 빼주며) 너 조용히하고 떡볶이나 드셔.. 너도 먹고 싶어서 와 놓고는

학생2: (학생 3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래서 연습은 했냐?

학생3: 니들이 먼저 가놓고 연습을 어떻게 하나? 그냥 시간이랑 곡이라 정하고 왔지.

- 학생1: 뭐래! 왜 우리 탓이야.. 니들은 시간 되면 하면 되지.
- 학생3: 야 사실 시간이 되는 사람이 어디있냐. 니네 학교나 우리 학교나 다 똑같지. 그냥 시간을 내는 거지. 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니까.. 니가 BTS가 온다면 학원 땀에 못한다 하겠냐?! 지난번 수련회때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간증까지 하고는...
- 학생1: 또 전도사님으로 변신한거냐?? 진짜 특강이 있다니까.
- 학생2: 내용도 너무 유치하구.
- 학생3: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라면 니들이 빠진 청소년부 댄스를 좋아하지 않을 듯..
- 학생2: 애 또 라면 타령 시작했네.. 선생님이라면, 부모님이라면, 게다가 예수님이라면...
- 학생3: 니들이 나를 학생회장 시키면서 잘 도와준다고 했어, 안했어?
- 학생2: 또 잔소리 시작이다. 너는 맨날 그 소리로 우리를 부러먹더라.

이때 카톡이 올린다.

- 학생1: (핸드폰을 보며) 쌤 귀신인가봐. ‘셋이 떡볶이집에 같이 있지? 선생님도 학생때 성탄준 비가 엄청 부담됐단다. 그래도 우리 00교회 학생부를 믿는다’ 라고 그러시면서 아이스 크림 쿠폰을 보내셨어.
- 학생3: (어깨를 잡으며) 그니까 선생님 속 그만 썩이고 하는 걸로 합시다. 가뜩이나 바쁘신대..
- 학생2: 우리 선생님 좀 대단하긴 하시지. 회사일로 엄청 바쁘시던데 청소년부 교사도 열심히 하시잖아. 나는 돈준다해도 교사는 안하겠단다.
- 학생1: 나도
- 학생3: 나도 니들같은 학생들이 있다면 절대
- 학생1,2: 너
- 학생3: (손으로 브이를 만들며) 히히
- 학생2: (손으로 머리를 붙잡으며) 아 안되겠다. 나도 오늘 집가서 수행평가 미리 해놓고 성탄절 댄스연습 할테니까 (학생1의 팔짱을 끼고 흔들며) 00아, 너도 할꺼지? 응 하자 하자...
- 학생1: 가만 있어봐 (전화를 건다) 수학생!저 00인데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행사땀에 그러는데 방학특강 하루만 바꿔주시면 안될까요? 제가 숙제도 미리 해가고 다른날 보충잡아서할게요...감사합니다.
- 학생3: 그럼 맘 바뀌기전에 선생님께 한다고 카톡해. 얼른
- 학생1: 너도 진짜..(카톡을 넣으며) 됐냐?

*PPT화면에 카톡화면이 보이고 “쌤!! 우리 모두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석할게요”란 문장과
걸어가는 이모티콘이 보내지면 선생님도 웃는 이모티콘으로 답을 보낸다.
불이 꺼진후 예수님의 웃는 얼굴과 강림절 초 두 개에 불이 켜진 이모티콘이 들어왔다 꺼진다.*

< 4막 >

교회로비에 여선교회장이 뜨개실을 들고 어설픈 뜨개질을 하고 있다.

- 집사님: (바쁜걸음으로 반갑게 들어오며) 권사님 뭐하고 계세요?
- 여선교회장: (뜨개실을 꺼내들며) 집사님~~ 이것좀 봐봐. 내가 엄청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 집사님: 뜨개실이네요? 왜요 요새 수예 시작하신거예요?
- 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에 우리 바깥 트리에 주일마다 쿠키랑 사탕 달았던거 생각나? 애들이 엄청 좋아 했잖아.
- 집사: 그럼요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매주 새벽마다 트리에 매다느라고 손이 퐁퐁 얼었지요. 회장님 이번엔 그런 일 벌이시면 안돼요. 그럼 난 진짜 이번에는 안도와 즐겨예요.
- 회장: (손을 잡으며) 에이 집사님이 안도와주면 어떻하나. 우리 집사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지.
- 집사: (슬그머니 손을 빼며) 또 무슨 일을 벌이시려고 그러는대요?
- 회장: 내가 우리 여선교회가 강림절을 맞아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아침에 설거지를 하다가 수세미를 떠서 트리 장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거야. 초록색, 빨간색실로 수세미를 떠서 걸어두면 장식도 되고 사람들에게 선물도 되고 좋을 것 같지 않아?
- 집사: 그런 엄청 난 일을 생각하는 회장님이 나는 더 놀라와요. 그리고 성탄절에 수세미가 뭐예요.
- 회장: 왜 색깔도 예쁘고 말이지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뭔가를 깨끗이 해준다는 의미로 수세미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잖아.
- 집사: 회장님! 연말에는 다들 바쁘는데 누가 그런 걸 한다고나 하겠어요.
- 회장: 일단 우리 임원들이 먼저하고 다른 회원들에게도 부탁해보고 그러자. 우리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잘 도와주시잖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게 더 불편할 것 같아.
- 집사: 전 뜨개질도 못한단 말이에요.
- 회장: 나도 해본지 엄청 오래 됐는데 00권사님이 잘하시니깐 가르쳐달라고 하려구. 내가 전화 해놨어 같이 점심 먹으면서 부탁해보려구.
- 집사: 그래서 점심 사준다고 절 부르신거군요.
- 회장: (웃으면서 일어선다) 밥도 먹고 권사님이랑 차도 마시고 좋잖아. 우리가 먼저 잘 알아보고 여선교회의 시간에 얘기해봅시다. 얼른 밥 먹으러 갑시다.

회장님과 집사님이 나가면 불이 꺼진다. 예수님의 웃는 얼굴과 강림절 세 번째 초가 켜진 이모티콘이 켜졌다 꺼진다.

불이 켜지면 다시 예배실이다.

- 트리: (걸어 들어오며) 봤지? 모두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 너희들만 기다리는 일을 하는 건 아니란다.
- 보라색초: 나는 강대상 위에서 우두커니 있는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 연보라초: 00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성탄을 준비하며 마음의 불을 밝히고 있었던 거야.
- 분홍색초: 찬양대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빛을 밝히고

- 흰색초: 학생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연습을 했던거지.
- 트리: 매년하는 성탄절 장식인거 같지만 권사님 집사님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더 아름답게 하 기위해 매년 애쓰고 계셨단다. 그래서 00교회 성탄절이 따뜻하고 아름다웠던거란다.
- 연보라초: 다음주에는 나도 보라색초 옆에서 따뜻하게 불을 밝히겠어
- 분홍색초: 나는 아직 남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곳곳이 서 있을 거야.
- 흰색초: 기다리다보면 내 차례가 되고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되겠지.
- 트리: 이제 강림절 준비가 제대로 된 것 같네
애들아 목사님이 들어오시나 봐. 다들 제자리로 가자

초들은 나란히 서고 트리도 가만히 서서 목사님의 기도가 시작되면 함께 기도한다.

- 목사님: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00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애쓰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귀히 여겨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빛으로 비취 주시고 우리 00교회가족 모두가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시고 먼저 제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소서.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미소 짓게 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가리워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목사님의 기도소리와 함께 불이 켜지면 예수님의 웃는 얼굴과 네 번째 강림절 초가 켜진 이모티콘이 켜졌다 꺼진다. 그리고 캐롤소리와 함께 막이 내린다.

연극을 준비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성탄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보면 우리의 게으름이, 신실하지 못함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은 우리의 이 작은 열심조차도 기꺼이 기쁘게 받아 주실 거란 마음이 듭니다. 동방 박사의 황금, 유향, 몰약을 받으신 주님은 귀한 선물보다 그들이 온 긴 여정을 더 기쁘게 받아 주셨을 겁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천사의 노래 소리를 듣고 빈손으로 찾아 온 목자의 경배 역시 똑같이 귀히 여겨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크고 화려한 엄청난 트리도 기뻐하시지만 유치부 아이가 색종이를 접어 만든 작은 리스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극은 성탄을 기다리는 각 교회의 강림절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작은 찬양대의 칸타타가, 바쁜 아이들이 시간을 쪼개어 준비하는 축하무대가, 여성교회원들의 헌신이, 그리고 홀로 강단에서 드리는 목사님의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다림이 됩니

다. 성탄이 돌아오면 어릴 적 교회에서 성탄전야제 때마다 어르신 권사님이 손수 빗어 만들어 주신 따뜻한 만둣국이 생각납니다. 그 만두의 따뜻함이, 든든함이 어른이 된 지금도 성탄을 밝히는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각각 교회에서 강림절을 보내는 그 살아있는 이야기가 각 교회에서 드리는 아름다운 성탄 선물이 되길 기도하면서 작은 이야기들을 담아봅니다.

Tip1 배경은 각 교회의 공간사진으로 준비합니다.

배경을 만들어도 좋고 프로젝트로 보여줘도 좋습니다.

Tip2 아이들이 모두 연기할 수 없다면 해당 부서에서 나눠서 실제 해당되시는 분들이 연기하면 내용전달이 더 생생할 것 같습니다.

Tip3 당일 모든 연기하기 어렵다면 강림절 초와 목사님을 제외한 다른 장소의 이야기는 미리 영상으로 녹화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Tip4 2에서 4막 이야기는 각 교회의 성탄 준비 이야기로 바꿔서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05



강림절 환경장식 및 자료사진

김주애 전도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절이 지나고 나면 다음 한 해를 설레임 가득 안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달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강림절이 다가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1년을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따뜻한 등불을 밝히고 그 사랑을 전하는 강림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매 주일 하나, 둘, 셋, 넷 촛불을 밝히고 장식을 더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세상의 떠들썩한 그것과는 다른 온전한 기쁨과 설레임 가득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블링 블링 레터링

전구초를 이용하여 성탄을 알리는 반짝이는 글씨를 만들어 게시해 보자.



■ 준비해요!

초록색이나 연두색 색지(roll로 구입, 나뭇잎 수에 맞게), 다홍색이나 빨간색 색지(열매 수에 맞게), 소포지, 앞사귀 도안, 가위, 양면테이프, 글루건

■ 만들어 보아요!

초록색이나 연두색 색지(roll로 구입, 나뭇잎 수에 맞게), 다홍색이나 빨간색 색지(열매 수에 맞게), 소포지, 앞사귀 도안, 가위, 양면테이프, 글루건



- ① 제작할 글씨본을 출력하여 박스지 위에 외곽선을 따라 그려 오린다.
- ② 젯소를 발라 컬러를 정리해 주고 건조되면 원하는 컬러를 덧입힌다.
- ③ 전구 넣을 곳을 표시하고 전구 크기에 맞춰 송곳이나 펀치로 뚫어준다.
- ④ 글씨와 같은 컬러의 종이를 길게 잘라서 글씨를 둘러 붙인다.
- ⑤ 글씨 뒤에서 앞으로 전구를 끼워 원하는 곳에 설치한다.

■ 활동 tip.

- 설치할 곳을 고려하여 글씨를 외곽선만 나오도록 출력하여 사용한다. 교회 로비에 장식할 경우에는 대형 사이즈로 제작하여 포토존과 함께 진행하면 좋겠다.
- 글씨는 박스지, 우드락, 폼보드용 스티로폼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 흰색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젯소를 여러 번 덧발라 건조하여 제작한다.
- 글씨와 테두리까지 제작한 후 락커를 뿌려 채색해도 된다. 다양한 컬러를 조합하여 그라데이션 컬러로 제작할 수도 있다.
- 반짝이 가루를 이용하기(목공용 풀이나 폼아트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반짝이 가루를 붙여 제작), 오너먼트 볼 이용하기(아주 작은 오너먼트 볼로 전구 끼우는 자리에 붙여 제작)로 다양한 글씨를 만들 수 있다.

- 트리 전구는 충전식이나 건전지를 사용하는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면 설치 후 밑으로 코드줄이 나오지 않아 깔끔하다.

2. holy holy! 강림절 미니 배너



■ 준비해요!

박스지(우드락 또는 폼아트용 스티로폼), 펠트지(바탕-진보라색/장식-초록색, 올리브색), 폼폼이(빨강), 가랜드용 리본, 젓소, 금색 물감, 칼, 가위, 글루건, 붓

■ 만들어 보아요 !



- ① 바탕용 펠트지(보라색 계통)를 깃발 모양으로 잘라놓는다.
- ② 배너에 들어갈 문구 글씨를 뽑아 박스지에 옮겨 쓰고 잘라 젓소로 밑채색을 해 둔다.
- ③ 금색 물감으로 글씨 옆면까지 꼼꼼히 칠해 건조한다.
- ④ 잘라 둔 바탕용 펠트지 위에 한 글자씩 붙인다.
- ⑤ 초록 펠트지로는 홀리 리프 잎사귀를 잘라 붙이고 빨강 폼폼이는 열매로 붙여 배너를 장식한다.
- ⑧ 가랜드용 줄에 순서대로 글씨를 꿰어 걸어준다.

■ 활동 tip.

- 배너 아래쪽에 금색 수술을 만들어 달아주면 더 고급스럽다.
- 글씨 만들 재료는 상황에 맞는 것으로 선택하고 물감으로 칠하는 것이 번거로우면 락카를 뿌려도 좋다.
- 글리터 펠트지를 구입하여 제작하면 글씨 작업이 훨씬 수월하다.
- 글씨를 부착할 때에는 글루건으로 붙이며,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는 글씨 뒤에 폼양면테이프를 군데 군데 붙인다.
- 배너에 들어갈 문구는 자유롭게 하되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한다.
- 글씨만 넣어 가랜드처럼 제작할 경우에는 두껍고 진한 글씨체를 선택해서 작업해야 게시했을 때 잘 보인다.
- 배너나 가랜드 중간에 입체별이나 홀리 리프 열매, 잎을 만들어 함께 걸어도 좋다.

응용팁1.) 홀리 크리스마스 레터링



· 영문으로 레터링을 하여 모빌처럼 걸어 놓는다.

응용팁2.) 반짝반짝 작은 별!



· 박스지에 별을 그려 오려내고,
가운데 두꺼운 가위집을 낸다.

· 금색 물감을 여러 번 칠해
건조한 후, 별을 서로 끼워
입체별을 완성한다.

3. 크리스마스 홀리 리프 가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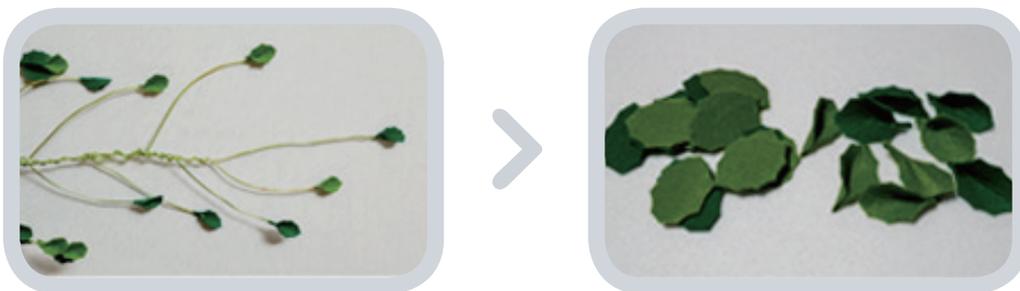
펠트지와 폼폼이, 와이어로 길게 가랜드를 제작해서 강대상을 장식할 수 있고, 둥글게 모아 묶어주면 리스로 만들어 예배실 문이나 창문, 강림절 초 테이블 등의 장식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준비해요!

공예용 와이어(초록 계통이나 금색 / 두꺼운 것), 펠트지(초록 계열 2-3종류), 폼폼이(빨강 계통 또는 빨간 열매 종류) 글루건, 가위

■ 만들어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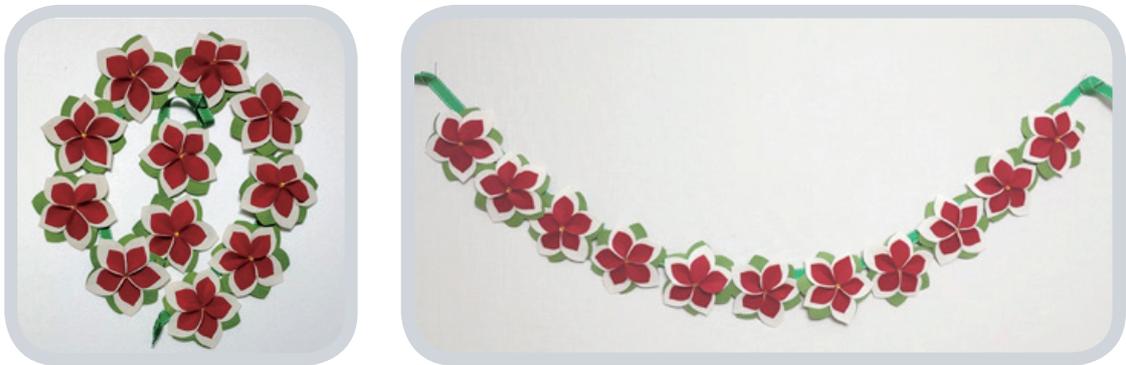


- ① 공예용 와이어로 가랜드의 줄기를 만든다.
- ② 초록 계통 펠트지를 나뭇잎 모양으로 잘라 와이어 줄기에 붙여준다.
- ③ 완성한 가지의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중간 중간 폼폼이 열매를 붙여 완성한다.

■ **활동 tip.**

- 공예용 와이어가 아니더라도 줄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하는데, 굵은 것이 입체감과 완성도가 있다.
- 홀리 리프 잎은 연두색, 올리브색, 짙은 초록색 등 번갈아 가며 붙여주고, 열매는 다양한 컬러의 폼폼이를 사용해도 된다.
- 와이어가 잘 휘어지므로 둥글게 모양을 잡아주고 리본으로 묶어 성탄 리스로 사용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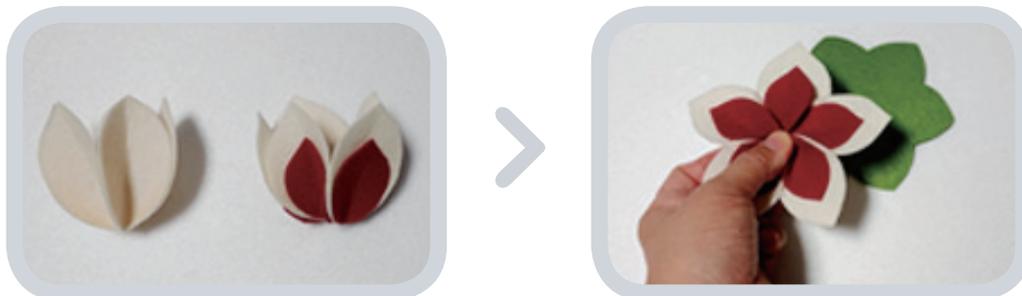
★ **포인세티아 가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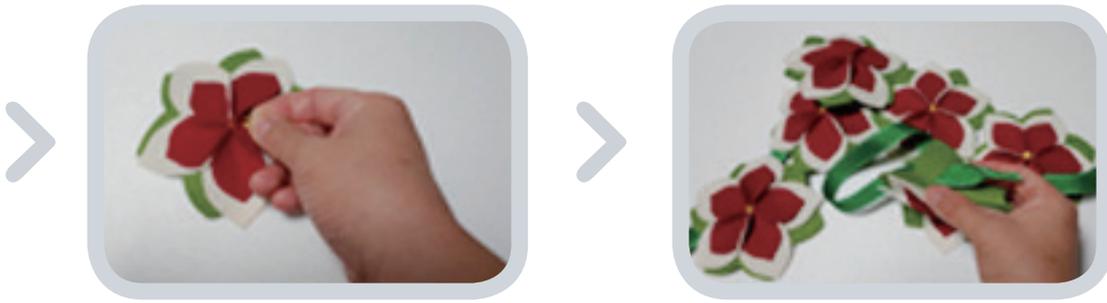


■ **준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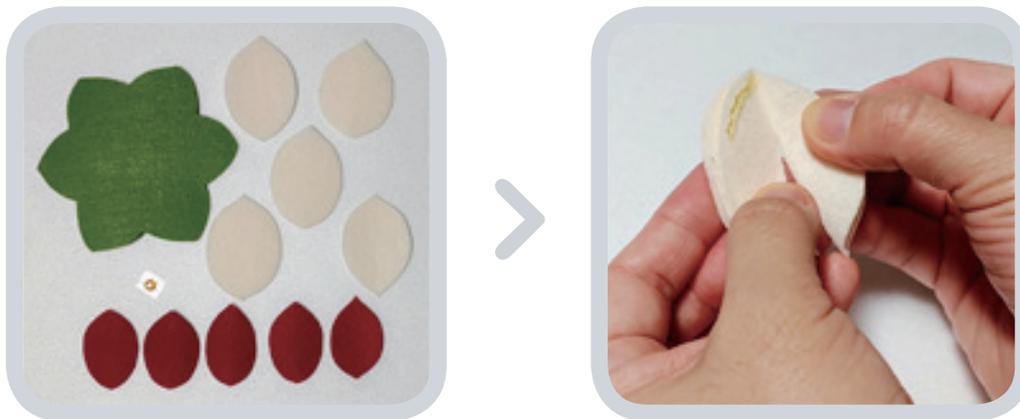
포인세티아 꽃본, 펠트지(초록계열, 아이보리색, 빨간색), 반짝이 큐빅(또는 붉은 계열 폼폼이), 초록계통 리본, 가위, 글루건

■ **만들어 보아요!**





① 포인세티아 꽃을 만들 펠트지를 잘라 반으로 접은 꽃잎(아이보리)을 위쪽만 붙인다(5장).



- ② 아이보리 꽃잎 위에 작은 꽃잎(빨강)을 붙인다.
- ③ 완성된 꽃잎을 활짝 펴서 가운데 부분만 초록색 받침에 붙이고, 꽃의 가운데 큐빅을 붙인다.
- ④ 준비한 리본 위에 꽃을 위치해 보면서 초록색 받침에 가위집을 넣어 꽃을 꿰어 가랜드를 완성한다.

■ **활동 tip.**

- 꽃 가운데 큐빅은 폼폼이나 수술 등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랜드 리본을 끼울 때에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리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위집을 넣고 리본을 끼운다. 리본은 받침의 뒤에서 앞으로 꿰어주어야 받침이 리본에 가리지 않는다.

4. 기다림의 강림절 초

강림절이 시작되면 미리 초를 준비하여 장식해 놓고 한 주에 하나씩 불을 밝히자. 매주 밝히는 촛불의 의미를 알려주면서 예수 탄생의 기쁨이 점점 더 커지도록 도울 수 있다. 초는 보라, 연보라, 분홍, 흰색 순서로 점화하며,

한 주에 하나씩 점화하는 초의 개수를 늘려간다. 첫 주일에는 하나, 다음 주에는 두 개를 켜놓는 식이다. 어린이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에서는 교사와 담당자가 조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안전하게 전구초를 장식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성탄절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는 경우에는 초 4개(보라, 연보라, 분홍, 하양)를 준비하여 놓는다.



■ **준비해요!**

플라스틱 와인잔(높이가 다른 것), 포인세티아 꽃, 양초(보라, 연보라, 분홍, 하양/ 또는 컬러링한 전구초), 리본 등 장식할 수 있는 것. 보라색천

■ 만들어 보아요!

- ① 플라스틱 와인잔을 뒤집어 컵의 목 부분에 포인세티아 꽃을 묶어준다.
- ② 컵의 받침 부분에 초를 올려 장식한다.
- ③ 보라색 천을 싹은 테이블 위에 순서대로 초를 올리고, 만들어 놓은 홀리 리프 리스와 리본으로 장식한다.

■ 활동 tip.

- 플라스틱 와인잔 안에 전구나 폼폼이, 트리볼 등을 넣거나 와인잔의 목에 작은 포인세티아 꽃을 묶어 장식한다.
- 높이가 다른 와인잔을 구하기 어려우면 지그재그로 배치하여 주고, 받침을 이용해 높낮이에 변화를 줄 수 있다.

5. 크리스마스 램프

성탄 전야의 깜깜한 밤,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기쁜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처럼 우리도 크리스마스 램프를 들고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되어보자.



■ 준비해요!

램프 전개도, 박스지, 금색 물감(흰색 물감/금색 락커 등), 전구초, 트레싱지(또는 기름종이), 양면테이프, 칼, 가위, 글루건, 리본, 펀치



■ 만들어 보아요!

- ① 박스지 위에 램프 전개도를 대고 밑그림을 그려 오린다.
- ② 접히는 선이 깨끗하게 접히도록 자로 눌러둔다.

- ③ 금속 물감으로 램프 겉면을 꼼꼼하게 칠해준다.
- ④ 램프 전개도 안쪽에 양면테이프로 트레싱지(기름종이)를 붙인다.
- ⑤ 램프 윗부분을 제외하고 박스 부분을 글루건으로 붙인다.
- ⑥ 램프 윗부분의 구멍에 준비한 리본을 끼운 후 램프 안쪽에 전구초를 넣고 리본을 묶어 마무리한다.

■ **활동 tip.**

- 검은 색이나 흰색 도화지를 이용하여 제작하면 컬러링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 박스지의 경우 정밀한 표현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다른 재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별, 레터링, 이미지 등을 표현할 수 있다.
- 램프 안쪽에 트레싱지 대신 한지, 습자지, 불투명한 천 등 다양한 것을 붙일 수 있다.
- 램프의 윗부분을 전구초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제작하고, 리본을 길게 하여 예배실에 걸거나 바닥에 내려 놓아 장식해도 된다.
- 전구초의 밝기가 약한 경우 트리전구를 램프에 넣어 사용해도 된다.